

로잘린드 이야기

에이미 호 (AMY HO)

우리 둘째 아이 로잘린드는 우리가 홍콩에서 캐나다로 이민 온 뒤 두 달 만에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프레리 지역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조산아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물론 아이의 조산이 장래 성장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염려했습니다. 아이는 8개월이 되었을 때 고도 난청 내지 최고도 난청이라는 진단과 함께 운동기능발달도 지체되리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 아기의 난청 진단을 받고 우리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어요. 우리 딸이 언어를 배우지 못하거나 말을 하지 못하거나, 또한 최악의 경우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할까 봐 걱정도 됐어요. 당시 이야기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는 친구와 나눈 슬픔과 좌절감뿐이었어요. 이 친구는 고도 난청인 아들을 홍콩에 있는 정규학교시스템에 맞추어 편입시키려고 애를 썼답니다.

우리는 딸의 의사소통능력과 언어능력개발을 도와주겠다고 단단히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청력이 좋은 동급생들과 똑같이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받고 장래에 의미 있는 직업을 구할 기회를 마련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로잘린드를 조기개입프로그램에 등록했고, 우리가 택한 가족 중심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했어요. 우리는 조기개입담당자는 물론 이들이 제공한 다른 자원(책과 비디오)과 부모 그룹한테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아발달프로그램’ 담당자가 한 달에 한번씩 우리 집에 와서 딸의 소근육 운동기능의 발달을 도와주었어요. 딸은 또한 태어나서 처음 몇 년 동안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로잘린드는 난청 진단을 받은 후 곧 보청기를 착용했어요. 세 살이 되자 나머지 청력마저 완전히

잃게 되어, 많은 생각을 한 뒤 우리는 아이에게 인공와우를 해 주기로 했어요. 지금은 인공와우가 딸의 일부가 되어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영어가 우리 모국어는 아니지만 딸이 앞으로 영어권에서 자랄 것을 감안하여 딸의 영어 기초를 튼튼히 해주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아이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원어민 영어에 접하도록 아이를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놀이 그룹이나 체육수업에 데려가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매주 열리는 이야기교실에도 데려갔어요. 이야기 시간이 끝나면 그 책을 대출하여 집에서 다시 읽어 주었고요. 내가 말하고 글자를 아이에게 보여주며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읽어 주었어요. 오늘날 아이는 독서를 아주 좋아하고 늘 책 속에 코를 파묻고 있어요 😊.

우리 부모님도 처음에는 진단 소식을 듣고 당황했지만 로잘린드를 아주 잘 도와주고 가족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딸은 오빠 케isi와 네 살 차이가 나는데도 아주 가깝게 지내요. 케isi는 종종 언어게임에 참여하여 로잘린드의 듣기와 말하기 연습을 격려해주던 조기개입 담당자를 도왔습니다. 로잘린드는 오빠가 오랜 세월을 걸쳐 전해 준 소설과 시 덕분에 독서에 관심을 주로 갖게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우리 딸은 이제 UBC에서 영문학 학사학위를 받고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시절에 산학 인턴십을 했던 비영리단체에서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딸은 항상 언어와 홍콩의 복잡한 역사에 매료되어 홍콩에서 거의 일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한 적이 있고, 나중에는 법률사무소에서 산학 인턴십을 했습니다. 딸은 한결같이 쾌활하고 마음이 열려 있으며, 살다가 보면 그때그때 만나게 되는 기회는 무엇이든 잡으려고 애씁니다.